

육아정책 소식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교육부는 2017년 6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되었음을 밝혔다. 본 개정령안에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이 개정령안은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되어 즉시 시행되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유아 모집·선발 등 유치원 입학 관련 「유아교육법」 개정('16.5.29. 공포·시행)에 따른 법령 체계 정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분	내용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 방법 다양화	①현행: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한 직접 선출이 원칙 ②개정: 학부모 운영위원 선출방법을 다양화하여 유치원운영위원회 활성화 유도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	①현행: 운영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별도 규정 없음 ②개정: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수행 보장
유치원 입학 관련 조항의 체계 정비	①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치원 입학 관련 조항이 「유아교육법」('16.5.29.)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된 관련 조항을 삭제하여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중 99.9% 교육 실시

보건복지부는 5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의무기관 63,669 개를 대상으로 2016년도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한 결과(실시율 99.9%)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2015년 9월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5개 기관(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의 신고의무자에게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와 실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2016년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신고방법 및 피해아동 보호 절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각 교육의무기관별로 집합·사이버교육 등으로 진행하였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미실시한 3개 기관(아동복지시설1, 종합병원2)은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동학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를 강화 등의 다양한 교육과 정책을 추진한 결과,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는 2015년 대비 69% 급증(4,900건 → 8,302건)하여 일반적인 아동학대 신고* 증가율(54%, 19천여건 → 29천여건)보다 훨씬 높았으며,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건 중 실제 아동학대로 판단된 비율도 77.6%로 비신고의무자의 69%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향후에도 아동학대 여부를 식별하기 쉬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활성화를 위해 인식개선 교육·홍보 등을 지속 강화하고, 모든 신고의무자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확대 및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등 교육도 내실화할 계획이다.

‘서툰지만 노력하는 아빠’ 함께 응원해요!

보건복지부는 5월 11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부부의 동등한 가사·육아 분담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아빠 육아 응원’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가나다(가족문화개선, 나부터, 다함께)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해 실시한 ‘둘이 하는 결혼’ 캠페인에 이어 진행된다.

12일부터 지상파 TV 등을 통해 방송되는 이번 캠페인은 육아에 서툰 아빠를 응원함으로써 아빠가 주체적으로 육아에 참여하고 부부가 함께하는 육아가 더욱 즐거워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아빠 육아 응원’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18일부터 한 달 간 네이버 해피빈에서도 아빠 육아참여 독려를 위한 ‘도와주는 아빠를 함께하는 아빠로’ 캠페인을 실시한다.

네이버 검색창에 ‘아빠 육아’, ‘초보 아빠’, ‘아빠 힘내세요’를 검색하고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행복검색 서비스도 동시에 운영한다.

캠페인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 검색창에서 ‘아빠 육아’를 검색하거나 캠페인 페이지에 접속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빠의 적극적인 육아참여는 출산율 회복을 위한 열쇠”라며 “캠페인을 통해 응원과 격려를 얻은 아빠들이 육아에 대한 긍정 경험을 몸소 체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육아에 ‘함께하는 아빠’가 늘어나 부부 간 동등한 가사·육아 분담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